



韓國의 쑤셔이즘

孫 哲

인류가 지닌 성(性)의 역사

쑤 뒤키는 여름철마다 강의시간에 꾸벅꾸벅 조을고만 앉아있는 학생들의 잠을 깨우는 수작으로 늘상 지저리는 농(툰)이 있다.

치녀잉태로 태어났다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드께서 하필이면 여인을 보고 혹하는 자 간음이니라 또 죄없는 자 돌을 던지라 했겠는가고 느닷없이 큰 소리로 내치른다.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고 어리둥절하는 그들에게 잇대어 희랍신화를 읽은 적이 있는가 재쳐 묻고 맞부딪치는 시선마다에 생긋 미소를 던지는 것이다.

절대권자인 제우스신(神)이 뒗인가에 무작정 덤쳤다 하면 아뵐싸 갖가지 암컷들과의 생식행위였고 결과 또한 험상궂

은 키마이라의 사촌 팔촌들이 수없이 생겨나지 않았던가!

신화란 건 긴 세월을 말로 전해 내려오다 글로 남겨진 옛 인간들의 참 모습에 대한 투영(投影)이었다면, 불과 5천년 전 안팎의 신석기(新石器) 무렵 우리네 조상들의 성행위가 얼마나 불쌍사나운 꼴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바리새 무리 연줄들의 추잡한 오입판과 화냥질을 보다 못한 주님께서서 먼 후손들만이라도 기필코 만물의 영장이고자 하는 일념으로 엄히 내리신 계율(戒律)이 아니겠는가……고 청산유수로 내 학설인양 도도히 해대느라면 어느새 강당은 웃음소리로 우렁차게 된다.

공자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才不同席)은 이에 비하면 정말 양반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로부터 2000년—.

부간다라는 종족이 루간다라는 말을 쓰며 살고 있는 우간다 나라 아민이란 이름의 상사(上士)출신 통치자가 있었다. 그 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짜증을 내면서 했다는 짓곳은 투정. 내 백성들이 지나치게 그것만을 즐기는 까닭! 이라 했다. 스스로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국모님들 소생이 서른도 더 넘는다는 그 입에서 말이다.

이러한 신문 까십란을 본 다음 이번에는 농 아닌 진짜 걱정에 잠겼다. 거기서는 얼마 아니어서 독침당약일(独寝当藥日) 아니면 무홀데이라란 희한한 날이 제정되어 여기는 자 엄벌에 처하리라는 법령이 선포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무주무육일(無酒無肉日)이란게 있었듯이 말이다. 또 저렇다간 남남인 남과 여 사이는 차치하고 애인끼리는 물론 어엿한 합법적 부부라 할지라도 라브 메이킹때마다 매번 각하 허가장을 내보여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등등 요행 얼마 못가서 그는 실각하여 축출되고 말았지만.

전쟁에 패한 일본은 일제때 남아 있었던 간통(姦通)이라는 해괴한 죄에 대해서 방질 계집질이 조꿈도 다룰 바 없는데 굳이 아낙만을 골라 벌한다는 건 법의 균등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솥제 파기해 버렸다.

사랑이 응어리진 무르익은 슬기와 정감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하나로 합쳐지는 남체와 여체는 그 차원이 어떨든 아무도 참견할 수 없는 참이요 착함이요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 이승만 때 똑 같은 법을 다루면서, 여남동권인 세상인데 남정네는 그대로 놔두고 여인만이란 말도 아니다. 늙년들을 함께 잡아 가두어야 한다는 악다구니에 그만 쌍벌죄(雙罰罪)라는 이름의 민망스런 법이 신성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30대 새파란 나이였을 나는 어이없는 웃음부터 터졌고 금방 생각에 잠겼다.

남여 사이의 깊은 사랑과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 조물주가 창조해 낸 가장 훌륭한 선물인 신비의 고압전류가 바로 섹스라는 사실을 감히 외면하려 드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의 걸치레만이 결백한 성도덕관? 을 먼저 쓸까스러 주고 싶었다. 누군가는 인류를 크게 짜깨어 남과 여로 불렀다는데 여자를 유부녀 무부녀로 나눈 내 일찍부터의 통찰을 으시대 보고 싶었다. 또 한 남편을 거느린 아낙마다의 이마에다 「남자 접근 절대 엄금」이란 딱지를 붙이고 다니게 해야겠다. 미군정 때처럼 군인 재판관이 당신의 신체 일부 속에 저 사내 신체의 일부가 분명히 뚫고 들어왔던가 하는따위, 뿐이라 입포텐스인데 어찌 여자와 관계했겠느냐며

잡아떼는 발명에 그렇담 구실 못하는 양물임을 여체 옆에서 증명해 보이려는 상서롭지 못한 재판풍경을 늘 상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이 진즉부터 있었다면 나와 같은 양반의 후예는 아이애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을지도른다, 등등.

남여가 어울릴 때 자꾸만 어둡고 고요한 곳을 찾는 이유가 수치나 눈치탓이 아니라 둘이 한몸이 되어 우화등선하는 황홀경! 일컬어 “작은 죽음”의 경지인 완전 무방비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가설도 있다.

아무리 솟구치는 분통 일망정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았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기어 영오(陰囀)의 몸이어야 직성이 풀릴 사이였다면 어차피 고이 헤어졌어야 할 부부였을 것이다. 또 “못먹는 감 쭈셔나 버려라”는 따위 진즉 버렸어야 할 동방예의지국의 뿌리깊은 원시적 보복감정을 지레 북돋고 부채질하는 법이 있다면 당장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인류가 지닌 성의 역사를 새삼 지지콜콜 두적거릴 것까지도 없다. 여자란 한 군데는 쓸모가 있다는 더스트예프스키의 녀두리, 여자가 생산한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스명달의 재담, 인형의 집을 뛰어 나온 용감한 노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뜻한 사랑, 투신한 삼천궁녀의 눈물이 몽땅 허구(虛構)로만 내동댕이 치지 말자. 또 여자의 이름에서 미스미세스라는 관사(冠詞)를 떼어 팽개치자는 빗발치는 부르짖음은 진정 현금의 난픽션인 것이다.

사랑이 웅어리진 무르익은 슬기와 정감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하나로 합쳐지는 남체와 여체는 그 차원이 어떻든 아무도 참견할수 없는 참이요 착함이요 아름답음인 것이다.

성은 인간의 기본이라고 갈파한 프로이드이기 전에 섹스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버젓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한인 것이다. (1986. 3. 10)

(필자=전남의대 명예교수·의박)

제 4 차 전국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 계몽포어

내가 먼저 참여하자

기생충 실태조사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